

대한체육회, 업비트와 공식파트너 후원 협약…선수단 응원 영상 제작

등록 2026.01.16 12:24:29



[서울=뉴시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왼쪽)과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가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공식파트너 후원 협약식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2026.01.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대한체육회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체육회는 전날(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공식파트너 후원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핀테크(가상자산 거래) 부문 최상위 후원등급의 협약을 약속한 만큼 두나무와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과 국가대표 선수단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이날 후원 협약식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등이 자리했다.

대한체육회와 업비트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는 2월 개최 예정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선수단 응원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양측은 꿈나무 선수 육성 지원과 스포츠 저변 확대 등 다양한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하며 대한민국 스포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업비트는 대한체육회의 1등급 공식파트너로서 ▲대한체육회 휘장 및 공식 후원사 명칭 사용 ▲팀코리아 엠블럼 ▲국가대표 선수단 집합적 초상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으로서 기술력과 브랜드 역량을 바탕으로 스포츠와 디지털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유승민 회장은 "업비트는 이미 팀코리아 응원 영상 제작을 통해 대한민국 선수단에 진정성 있는 응원을 보내준 든든한 파트너"라며 "이번 공식 후원 협약을 통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향한 선수단의 도전에 업비트와 함께 힘을 보태고, 스포츠와 디지털 혁신이 만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오경석 대표는 "도전하며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업비트의 여정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선수단의 도전에 함께하며 국민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신뢰를 전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l@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